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겨주신 혁명적신념과 의지로 싸워나가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일 사랑하신 것은 붉은기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높이 추켜드신 붉은기, 우리 혁명의 승리와 투쟁의 기치인 붉은기는 절대위인들의 신념의 상징이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웠던 붉은기는 우리 혁명가들의 신념이고 령십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15(1926)년 10월 《8.2》의 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강고히 버려 싸우고 또 싸울것을 굳게 맹세하시였다.

연락도 없는 수수한 온돌방에서 모임은 조용히 진행되었으나 그 방에 차넘치던 활기와 열정만은 수십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수령님께서는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8.2》의 강령과 혁명적절정으로 붉게 물들여진 우리 혁명의 붉은기는 첫 당조직이 탄생하였던 진명학교에도 있었다. 기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항방을 다 할 때까지 싸우려는 조상의 혁명가들의 신념을 과시하며 혁명의 령명기를 장식하였었다.

성스러운 조선훈명이 력사의 맞을 울린 첫 기수에 나뭇잎 붉은 기발은 험난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야 하는 항일혁명적 나날들에 추호의 변색도 없이 더욱 힘차게 휘날렸다.

라자리에 휘날리던 붉은기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신념의 세계를 오늘도 감동깊이 전하고있다.

구국군과의 판계를 적대적판계로 부터 동맹판계로 전환시키는것이 조선훈명가들에게 있어서 혁명을 계속하는데 마나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상징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구국군 오의정사평과의 라자 구담판은 생명을 내건 모험이었다.

난관앞에서 물러설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신념에 충실할것인가. 문제는 이렇게 서고있었다.

가장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을 다 합쳐도

백두산 위인들의 신념이 어린 붉은기

수령님 한분을 대신할수 없다는 안락하듯 마음대로 라자리에 가는 길을 막아나선 사람들속에는 국제당과 견원도 있었다.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발 심사숙고해줄것을 수령님께 간절히 말씀드리며 자기들이 다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살아서 끝까지 조선을 위해 싸워줘야 할게 아니라고 하는 그의 청원은 절절할것이었다.

그 어떤 반대의견이나 그 누구의 설복앞에서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셨었다.

수령님의 친솔함에 위풍당당히 라자리에 향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기세차게 필릭인것은 붉은기였다.

대오앞에 날리는 붉은기!

그것은 바로 우리 수령님의 신념이었다.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믿음이었고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믿음을 실현하시려는 강렬한 지향이었다. 우리 수령님의 그 신념이 항일혁명앞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헤치고 사변적인 결실을 안아올수 있었다.

혁명적신념의 제일 강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길에 험난하고도 절대로 예외지 않고 언제나 붉은기사상, 붉은기신념으로 조선훈명의 진로를 진두에서 개척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임에 붉은기력사는 우리 조국의 연대와 연대들로 즐거우게 이어졌다.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하여 새로운 력사적봉우리에 올라설 때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신념이 얼마나 거창한 현실을 낳고있는가를 제부로 느끼지 않았었다.

한평생 어버이수령님께서 휘날려 오신 붉은기의 력사를 세기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신분은 위대한 장관님이지요.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의 밀밭에서 높이 추켜드신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시려는 신념을 간직하신 위대한 장관님께서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였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조선훈명이

사의 자옥을 요영구로 내뒀으시여 끝끝내 조선훈명을 위기에 구원하시였었던것이다.

요영구용정화는 진정한 어버이수령님의 불굴의 신념과 견인불발의 의지에 대한 사연깊은 이야기를 전하여 주는 력사적화폭이었다.

요영구용정화가 전하는 깊은 사연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요영구회의를 회고하시면서 일생을 자주적으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를 항상 각오해야 하며 그것을 뚫고나갈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언제인가 항일의 로투사와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군엄하신 어조로 자신께서는 복잡다단하

던 그 시기 요영구를 떠나실 때 수령님께서 지니시었던 그 높이신 뜻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관님께서 그토록 마음에 두고계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 불멸의 화폭을 항상 가까이 두고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회고하시면서 그 어떤 침략과 봉쇄도 단호히 격파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원대한 뜻을 품고나갈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수십년간 단련된 불꽃의 내리워진것을 기화로 사회주의

의 종말을 떠들던 제국주의자들의 대결전을 련련연승으로 이끈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지금도 우리 인민은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위대한 선군명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속에 부르고있다.

우리 장관님께서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의 인덕을 넘어 선군정장을 이어가시였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드높지 않은 신념과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불굴의 의지가 그 기발에 다 담겨져있었다. 그 나날 강성국가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선군명장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를 90년대의 《적기》가

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혁명가의 일생은 붉은기를 휘날려가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리상에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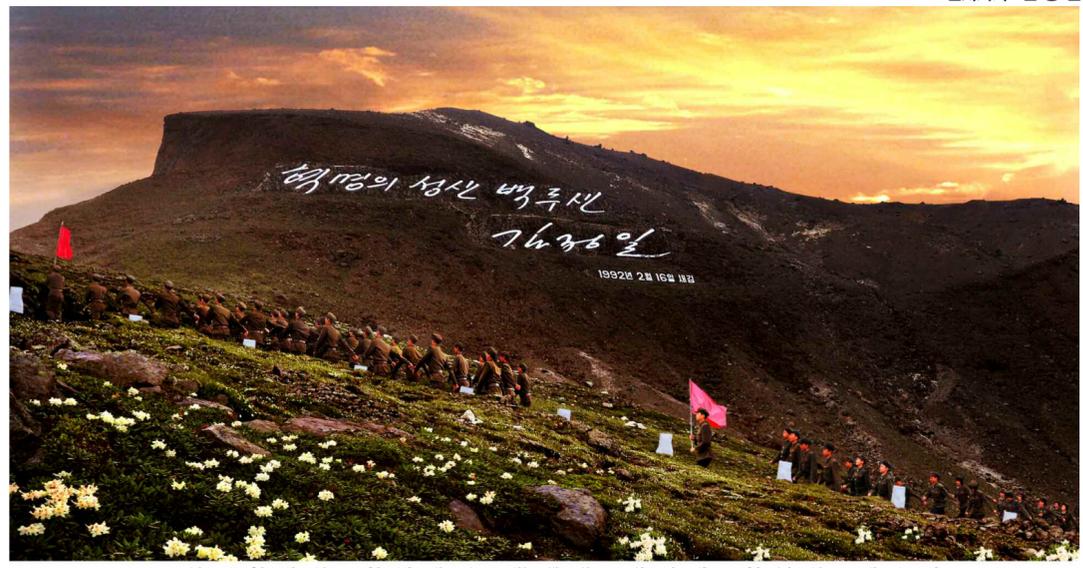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치는 우리 혁명의 진두에 오늘날 신념의 붉은기가 힘있게 나부끼고있다.

세계는 붉은기의 위대한 기수인경애하는 김정동지를 격정속에 부르르고있다.

그렇다. 세기의 상상상으로 힘차게 나래쳐오르는 사회주의조선의 거창한 현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니신 붉은기신념에 대하여 응변으로 말하여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려웠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선군대오를 형성하는 그이께서 지니신 붉은기신념에 대하여 응변으로 말하여주었다.

본사기자 한영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신념은 믿는 마음이다. 사상의식으로서의 혁명적신념은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이며 그것을 지켜가는 강인한 의지와 지향이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진지를 돌아보실 때에 이르러

백두산 3대장군을 칭송한 구호문헌들이 원패의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는 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구호문헌들도 돌아보시고 하시며 앞장서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아직 대한추위의 맹전 독이 풀리지 않은 날씨였다. 임박에 서린 새벽에 웃었거지 달말렸다. 찬기운이 서린 산길을 따라 로정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이제께서는 구호문헌의 글밭들을 한자한자 새겨보시다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은 수령님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항일혁명신념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정말 훌륭한 구호문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듯 문헌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생

한것을 새겨주는것 같다고 하시더니 정말 훌륭한 구호이라고, 이 구호를 두고 그냥 갈수 없다고, 우리도 두 그날 걸수 없으니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이 구호문헌을 배움으로 사전을 남기자고 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구호문헌이 잘 나오게 사전을 찍어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활영기앞에 나선 강사도 일꾼들도 속주쳐오르는 격정을 감할수 없었다.

자그마한 심장마다에 신념의 글밭을 새겨주시려는 그의 심중이 늦게나마 헤아려졌기때문이었다.

뜨겁게 젖어드는 그들의 눈앞으로 불멸의 화폭들이 흘러갔다. 이억만리 오두막에서 혁명에 다진 그 맹세를 번치 말라는 글밭을 청년혁명가의 수첩에 남기셨던 어버이수령님, 땅의 총신한 참된 전사로 생을 빛내이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담은 친필을 한 일꾼에게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관님의 영상이 숭엄하게 인자였다.

그 글밭들을 심장속에 간직할 조상의 혁명가들은 절대위인들께 다진 맹세를 지켜 신념으로 빛나는 한생을 살았으 노도 영생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머나먼 길에 바친 혁명가들의 피를 잊어도 하지 않으리라 더욱 굳게 결심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일꾼들과 함께 회고명예화문을 보시면서 나는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다. 혁명력사를 되새겨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한다고도 했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승리에 대한 드높지 않은 신념과 배짱, 불굴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다시금

필요성으로부터 맹산총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수님에게 특 특 띄어놓고 말씀하시였다.

정세는 엄중하고 더 견고해진다. 우리 혁명위업이 열매를 맺어 나라는 독립이라는것은 누구나 일치하게 믿고있는바이지만 만 한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10년이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 싸웠지만 그런 고생을 이제 5년 더하게 될지 10년 더하게 될지 그것은 적어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것이다. 물론 이 길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7일 만수대의사에서 최후준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메히코합중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메히코 합중국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 각하 나는 메히코특별 204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에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9월 16일 평양

화선식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덕성관참 조급담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관료들을 위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시려는 불멸의 혁명적신념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조급담위원회에서는 당 세로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이 깃들어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전적교육에 대한 학습과 연구토론회를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고전적교육에 대한 학습과 연구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간고한 항일의 나날 전진건설의 귀중한 경험 교양을 창조하시였으며 해방후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인민의 진정한 자주독립국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탄부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셨었다.

일꾼들부러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항일유격대식도 화선식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으며 사상교양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꾼들생산현장에 나간 한일군은 작업의 일환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고전적교육 《새 민주주의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에 대한 해설을 현실과 결합하여 실감있게 진행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 교양사업을 통하여 이국 관광의 당원들과 관료들은 더 많은 석탄을 캐낼 열의드높이 생산을 쫓아나가는 열의가 고조되고 있다.

로동신문원 언전행

어느 5월 위대한 장관님께서 한 포병부대를 현지시찰할 때에 이르러

부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관님께서 군인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구분대사당에 들리시여 벽에 걸려있는 《일일양식공급규정량》표를 눈여겨보시던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구분대사장에 담배가 잘 공급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담배가 잘 공급된다는 구분대사의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군인들이 피우는 담배를 좀 보라고 하시면서 담배를 몇갑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담배 4갑을 가져다드리셨을 때였다.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담배갑씩이 왜 다 다른가고,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담배인데 이렇게 다른데는 왜가 누구에게라 물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등항한 일꾼에게 담배갑들의 색깔이 왜 다른지 원인을 알아보고 이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관님께서 그 일꾼에게 우리가 이 담배를 가져가면 중대에서 모자라겠다

